



#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주요 특징과 과제

이 현 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많은 수정과 보완을 하는 손질을 거듭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학입시는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입시를 둘러싼 고질적 교육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등교육은 물론이고 심지어 초등교육까지도 대학 입시에 매달리는 교육 종속화 현상,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점수 따기에 매달리는 입시위주교육의 만연, 연간 30조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의 지출 등은 과열 입시경쟁교육의 악순환적 역기능 현상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학입시제도가 바뀔 때마다 일선 학교현장은 물론이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하여 온 국민이 달라지는 대학입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실정이다.

대학입시는 단순히 대학교육의 주체인 대학만의 문제라 할 수 없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문제이다. 그리고 국가가 필요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공급에 대한 책임을 저야하는 국가적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학입시는 국가의 입시공공성 제고를 위한 감독권, 대학의 학생

선발권, 고등학교의 학생추천권, 학부모의 교육위원권,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내지는 학습권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친 대학입시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2002년의 대학입시제도개선안은 ① 전형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독자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존중하는 자율성 부여, ② 복수지원·특별전형·수시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 등을 허용함으로써 진학자의 대학선택 기회 확대, ③ 전반적인 고등학교 생활과 잠재 가능성 등을 준거로 삼는 전형요소와 선발과정에 대한 다양화를 통하여 종합적인 고등정신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풍토 조성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자율성', '다양성', '공공성'의 원칙을 중시한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의 도입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2002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개선안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입학전형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 글에서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안」에서 밝히고 있는 2005학년도 대학

“

이 글에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안」에서 밝히고 있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과 과목별 출제의 범위 등과, 「200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 주요 사항」에 근거하여 각 대학의 전형계획에서 고려하고 있는 모집시기별·전형요소별 등 주요 전형자료 활용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

수학능력시험의 영역과 과목별 출제의 범위 등과, 「200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 주요사항」에 근거하여 각 대학의 전형계획에서 고려하고 있는 모집시기별·전형요소별 등 주요 전형자료 활용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200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 주요 사항」의 각 대학의 전형 계획에서는 전형 총점과 전형 요소별 점수 배점 등의 세부 사항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2005학년도 대입 지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진학지도에 필요한 준거를 제공해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모집 시기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비교과 활용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Ⅱ. 7차 교육과정의 편제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대입전형은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7차 교육과정은 첫째,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하고 둘째, 학교의 경영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에 서게 하고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유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그 근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과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②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③ 재량 활동의 신설·확대, ④ 학습량 최적화와 수준 조정, ⑤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⑥ 창의성, 정보 능력 배양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과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은 2005학년도 대학입시의 기본계획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근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를 국민공통 기본교육기간(10년)으로 설정하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고등학교 2·3학년에서는 학생선택중심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교과에 따라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으로 나누어 과정· 계열의 구분 없이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식과 대학입시전형체제로는 공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와 대입전형이 어렵게 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목 편제의 개편은 대학입시제도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한 셈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1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은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10개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목 26과목, 심화선택과목 53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물론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정한 교과를 이수하고 나머지 68단위 정도에서 학생들이 선택하여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차 교육과정의 편제를 고려하여 교육평가, 교육과정, 교과교육전문가, 교사로 구성된 정책연구진의 연구결과와 관련분야 전문가,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와 설문조사 등의 의견 수렴의 과정을 토대로 마련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안」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행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학생의 능력, 진로, 필요, 흥미를 중시하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따라 시험 영역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언어영역, 외국어(영어)영역은 범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수리영역,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할 것으로 되어 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응시과목의 선택은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의 5개 영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리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한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탐구영역에서는 11개

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영역에서는 8개 과목 중 최대 4개 과목(단 물리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는 최대 2과목 선택), 직업탐구영역에서는 컴퓨터 관련 4개 과목 중 1과목과, 전공 관련 13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수험 준비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그리고 〈표 1〉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와 〈표 2〉의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직접적 출제의 범위를 비교해 볼 때, 제2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고등학교 2, 3학년의 심화선택교과목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심화선택교과목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간접적 출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역별 출제 문항과 배점을 달리한 것은 교육내용의 중요도, 난이도, 소요시간, 변별력 등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안」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03년 12월 4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예비평가」를 실시하여 2004년 3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Ⅲ.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 계획과 대학의 전형자료 활용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은 그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따라 다양한 전형방법을 마련·운영하여 특성화를 지향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며,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만을 제시하되, 각 대학의 입학전형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며 학생의 진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

〈표 1〉 일반계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

구분	국민공통 기본교과	선 택 과 목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교          과	국어 도덕 사회	국어(8) 도덕(2) 사회(10) 국사(4)	국어생활(4) 시민 윤리(4) 인간 사회와 환경(4)	화법(4), 독서(8), 작문(8), 문법(4), 문학(8) 윤리와 사상(4), 전통 윤리(4) 한국 지리(8), 세계 지리(8), 경제 지리(6), 한국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수학	수학(8)	실용 수학(4)	수학 I(8), 수학 II(8), 미분과 적분(4), 확률과 통계(4), 이산수학(4)
	과학	과학(6)	생활과 과학(4)	물리 I(4), 화학 I(4), 생물 I(4), 지구과학 I(4), 물리 II(6), 화학 II(6), 생물 II(6), 지구과학 II(6)
	기술· 가정	기술· 가정(6)	정보사회와 컴퓨터(4)	농업 과학(6), 공업 기술(6), 기업 경영(6), 해양 과학(6), 가정 과학(6)
	체육 음악 미술	체육(4) 음악(2) 미술(2)	체육과 건강(4) 음악과 생활(4) 미술과 생활(4)	체육 이론(4), 체육 실기(4이상)* 음악 이론(4), 음악 실기(4이상)* 미술 이론(4), 미술 실기(4이상)*
	외 국 어	영어(8)		영어 I(8), 영어 II(8), 영어 회화(8), 영어 독해(8), 영어 작문(8)
		제 2 외국어	독일어 I(6), 프랑스어 I(6), 스페인 어 I(6), 중국어 I(6), 일본어 I(6), 러시아어 I(6), 아랍어 I(6)	독일어 II(6), 프랑스어 II(6), 스페인어 II(6), 중국어 II(6), 일본어 II(6), 러시아어 II(6), 아랍어 II(6)
	한문 교련 교양		한문(6) 교련(6)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 학(4), 생활 경제(4), 종교(4), 생태와 환경(4), 진로와 직업(4), 기타(4)	한문 고전(6)
	이수 단위	(56)	(24)이상	(112)이하
	재량활동	(12)		
특별활동	(4)		(8)	
총이수단위			(216)	

- ① ( ) 안의 숫자는 단위 수이며,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재량활동에 배당된 단위 수 및 특별활동 4단위는 10학년에서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 ③ \* 표시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심화 선택 과목은 체육, 예술에 관한 전문 교과의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 ④ 교양 교과에서 심화 선택 과목이 필요한 경우 전문 과목 중에서 선택하거나 시·도의 편성·운영지침에 의거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1.1.), 7차교육과정 개요 : 교육과정 자료 29.

〈표 2〉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영역	출제범위	문항수		시험시간	원점수 만점	표준점수		
						평균	표준 편차	범위
언어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60	듣기 6문항 포함	90분	100	100	20	0~200
수리 (택 1)	'가'형 수학 I + 수학 II +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3개 과목 중 택1)	30	수학 I 40% 수학 II 40% 선 택 20%	100분	100	100	20	0~200
	'나'형 수학 I	30	수학 I	100분	100	100	20	0~200
외국어(영어)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50	듣기·말하기 17문항포함	70분	100	100	20	0~200
사회/ 과학/ 직업 탐구 (택1)	사회 탐구	과목당 20	20문항 × 최대4과목	최대120분 과목당30분	50	50	10	0~100
	과학 탐구	과목당 20	20문항 × 최대4과목	최대120분 과목당30분	50	50	10	0~100
	직업 탐구	과목당 20	20문항 × 최대3과목	최대90분 과목당30분	50	50	10	0~100
제2외국어/ 한문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한문 8개 과목 중 택 1	과목당 30	-	40분	50	50	10	0~100

\*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3.6.),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안」

다”는 것을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기본방향의 대전제로 삼고 그 구체적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3-41호 참조).

#### ◆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대학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방법 개발·시행 : 대학진학 기회의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를 위한 특별전형 활성화, 종래의 시험성적 중심의 획일적 선발 관행에서 탈피하여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특기·경력·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시하여 선발
-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시행 : 정상적인 학교 교육 과정을 존중하는 전형자료 활용, 충점 위주의 전형에서 벗어나 다단계 전형 적극 도입
- 대학은 입학전형계획의 사전 예고제 준수 : 주요 입학정보를 사전 예고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의 예측이 가능한 대학입학전형이 되도록 하여 대학입학전형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 제한기준’으로 설정 : 최소기준 위반시에는 시정요구 및 행정적, 재정적 조치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이러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기본방향은 2002/2003/200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기본방향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도 2002/2003/2004학

년도와 같이 수시1학기, 수시2학기 및 정시모집을 실시하며, 전형유형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대학입학전형의 일반적 경향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 제한기준’으로 논술고사 외의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것도 같다. 그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2004 /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공통점

- 모집시기 : 수시1학기, 수시2학기, 정시(가, 나, 다 군)로 구분
- 모집유형 : 일반전형, 특별전형으로 구분
- 최소 제한 기준 : 대학별 필답고사는 논술고사로 시행, 기여입학제 시행 금지, 고교 등급제 적용 금지
- 전형자료 : 내신(교과성적, 비교과기록), 추천서, 자기소개서, 논술, 실기, 수능성적, 심층면접 등 전형자료의 대학별 자율적 활용
- 특별전형의 최저학력기준 : 최저학력기준 설정 권장
- 특별전형의 정원 관리 : 본교와 분교 분리 모집 실시
- 수시모집 제도 : 시행여부 대학 자율결정, 복수지원 기회 부여, 미등록결원은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모집(등록 전 추가합격 가능), 이중등록 금지, 특기·적성 중심의 전형 실시 권장
- 복수지원, 이중등록 : 합격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에 지원금지
- 고교 학사일정 : 고교 학사일정을 배려하여 전형 실시 권장

그러나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현행의 대입전형의 틀을 유지하되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수능시험 출제의 범위, 수능시험의 선택 영역, 응시자의 계열 구분, 수능시험 성적 통지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등에서 차이가 있다.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차이점,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일정과 추후 결정 사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응시자의 계열 구분을 하지 않으며,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 비해서 출제 교과영역을 축소하여 수험준비의 부담을 줄였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택과목으로 직업탐구영역을 추가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의 학생부 반영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을 추가한 것도 현행의 대학입학전형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전문대학이 2003학년도 2학기부터 수시모집을 실시함에 따라 수시모집 합격시 전문대학에 대해서도 복수지원과 이중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추후 결정 사항으로는 ① 모집시기별,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② 학교생활기록부, 수학능력시험, 논술, 면접 등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③ 취업자전형, 특기자 전형, 대학의 독자적 기준, 농어촌 학생, 산업체경력자, 실업계고교출신자 전형 등 특별전형 지원조건 등이 있다. 이들 모집인원,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과 전형유형별 지원조건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각 대학으로부터 10월~11월 중으로 관련 전형계획을 수합·집계하여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02년 8월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했던

「2005학년도 대입 학생부·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각 대학이 제출한 모집시기별 학생 모집계획, 전형요소 활용 계획,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비교과)영역의 활용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대학입학전형계획의 일반적 경향

2002년 6월~7월에 실시된 「200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 주요사항」 수합시 자료를 제출한 192개 대학의 2005학년도 학생모집 계획을 모집시기별로 살펴보면, 수시1학기모집 대학은 75개교(39.1%), 수시2학기모집 대학은 167개교(87.0%), 정시모집 대학은 192개교(100%)로 집계되었다. 이들 192개 대학들의 수학능력시험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고사(면접, 논술 등),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주요 전형요소 활용 계획에 대한 집계결과는 <표 4>와 같다.

수능시험 성적은 수시1학기모집에서 전형요소로 활용되지 않으며, 수시2학기모집에서는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된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는 수능시험 성적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과 논술·면접 등의 대학별고사가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수시모집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학생의 특기, 적성, 여건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등의 모집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특징은 현행 입시제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정시모집에서 수능시험 성적을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대학은 4년제 대입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전체의 98%인 189개 대학에 이르고, 수능시험

〈표 3〉 2004 /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주요사항

구 분	200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차 이 점	응시자 계열구분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로 구분	계열구분 안함	
	수능시험 출제의 범위	고등학교 1학년 ~ 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심화선택교과 (국민공통기본교과는 간접 반영)	
	수능시험 영역	• 언어, 수리, 사탐, 과탐, 외국어(영어) • 제2외국어 6개 과목 중 택 1	• 언어, 수리(가, 나형), 외국어(영어) • 사탐, 과탐, 직탐 3개 영역 중 택 1 • 제2외국어/한문 8개 과목 중 택 1	
	수능시험 수리영역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로 구분	수리 '가' 형, 수리 '나' 형으로 구분	
	수능시험 탐구영역	•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 사탐 72점 과탐 48점 • 자연계열 : 사탐 48점, 과탐 72점	•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1개 선택 • 사회/과학 최대 4과목, 직업탐구 최대 3과목	
	수능성적통지표	• 원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 및 백분위 표시 • 영역별 등급 및 5개 영역 종합등급 기재 • 선택과목명 미표기	•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9등급 표시 • 선택과목명 표기	
	학생부 반영	• 6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 - 교과 : 계열별 지정 교과 반영 - 비교과 :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 7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 - 교과 : 공통기본과정 교과 선택과정 교과 - 비교과 : 창의적 재량활동 추가	
	복수지원 금지	• 대학과 교육대에 적용	• 수시모집 합격시 전문대 포함	
전 형 일 정	학생부작성기준일	2003. 11. 21(금)	2004. 12. 3(금)	
	• 수능시험일 • 성적통지일	2003. 11. 5(수) 2003. 12. 2(화)	2004. 11. 17(수) 2004. 12. 14(화)	
	수시 1	• 원서접수 2003. 6. 3 ~ 6. 16(14일) • 전형 및 합격자 발표 2003. 7. 14 ~ 8. 19(37일) • 등록기간 2003. 8. 21 ~ 8. 22(2일)	2004. 6. 3 ~ 6. 16(14일) 2004. 7. 19 ~ 8. 19(32일) 2004. 8. 23 ~ 8. 24(2일)	
	수시 2	• 원서접수 및 전형 2003. 9. 1 ~ 12. 1(92일) • 합격자 발표 2003. 12. 7까지 • 등록기간 2003. 12. 8 ~ 12. 9(2일)	2004. 9. 1 ~ 12. 13(104일) 2004. 12. 19까지 2004. 12. 20 ~ 12. 21(2일)	
	예 고 사 항	정시모집	모집기간균별로 1회만 지원, 미등록충원 가능	
		• 원서접수기간 • 전형기간 • 모집기간균 • 최초등록 • 미등록충원합격통보마감 •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2003. 12. 10 ~ 12. 15 2003. 12. 16 ~ 2004. 2. 5 '가' 군(16), '나' 군(16), '다' 군(16) 2004. 2. 6 ~ 9 2004. 2. 19 2004. 2. 20	2004. 12. 22 ~ 12. 27 2004. 12. 28 ~ 2005. 2. 2 '가' 군(15), '나' 군(12), '다' 군(10) 2005. 2. 3 ~ 4 2005. 2. 17 2005. 2. 18
		추가모집	2004. 2. 21 ~ 29	2005. 2. 19 ~ 28
		주요사항 집계	2002. 12. 9	2003. 12. 20
추 후 결 정 사 항	모집인원	모집시기별,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2003.8. 고시원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대학별 전형계획을 수합·집계하여 2003년 12월 발표예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교생활기록부, 수능능력시험, 논술, 면접 등		
	특별전형 유형별 지원조건	취업자전형, 특기자 전형, 대학의 독자적 기준, 농어촌학생, 산업체경력자, 실업계 고교출신자 전형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3. 8),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3 - 41호 참조.

〈표 4〉 주요 전형자료 활용 계획 실태

(단위 : %)

모집시기	수학능력 시험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고사 (논술, 면접 등)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기타
		교과	비교과			
수시 1학기	-	96	75	72	40	36
수시 2학기	46	99	74	77	44	47
정 시	98	99	80	79	20	16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2. 8.), 「200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 주요사항」.

\* 대학별 반영계획은 전체 모집단위와 일부 모집단위에서의 '반영' 과 '미반영'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성적 반영 방법에서 대학의 전체 합계가 자료제출대학 수보다 많아질 수 있음.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3개 대학이 있다. 일부 모집단위에서 수능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12개 대학이 있다. 그리고 수능시험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시2학기모집에서는 전체의 46%인 88개 대학이 최저학력기준으로 수능시험 성적을 반영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모든 모집시기에 있어서 전형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생부의 교과성적은 수시1학기모집 대학의 96%인 72개 대학이 반영하여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교과성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교과 영역보다 반영 대학의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을 수시1학기모집 대학의 75%인 56개 대학, 수시2학기모집 대학의 74%인 124개 대학, 정시모집 대학의 80%인 154개 대학이 반영한다. 모든 모집시기에 걸쳐 70% 이상의 대학이 특별활동, 봉사활동, 출결사항, 창의적 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반영함으로써 7차 교육과정이 원만히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면접, 논술 등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여 반영하는 대학은 수시1학기에서는 72%인 54개교이고, 수시2학기에서는 77%인 129개교, 정시에서는 79%인 152개교이다.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을 반영하는 대학은 수시1학기에서는 40%인 30개

교이고 수시2학기에서는 44%인 73개교, 정시에서는 20%인 39개교 등으로 나타나 학생의 성적 이외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는 현행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택형 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행보다는 보다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생을 선발하려는 경향이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한 첫 입학전형이라는 점 때문에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2002 및 2003학년도 입학전형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7차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활용 계획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의 수능시험 성적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반영하지 않는 대학의 비율이 5.6%, 2개 영역 반영 12.6%, 3개 영역 반영 37.0%, 4개 영역 반영 44.1%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81.1%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대학이 수능시험 영역을 '2+1' 혹은 '3+1'의 체제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커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으나, 1~3학년 전과목에 대한 대입준비를 해야 했던 2002·2003·2004학년도 수능시험 체제에 비해 학습부담이 실제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교과만을 범위로 출제하고 탐구영역은 1개 영역만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언어, 수리, 외국어 등의 기초실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3+1' 체제나 '2+1' 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수하게 되는 10개 교과 56단위의 국민공통기본교과가 모두 내신으로 반영되게 됨으로써 다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학생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수능시험 영역만을 선택하여 준비한다면 오히려 학습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교과영역별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계획 실태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시모집의 경우 언어는 전체의 96%인 185개교가, 외국어(영어)는

97%인 186개교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수리영역은 '가' 형이나 '나' 형 혹은 '가/나' 형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가' 형은 21%인 41개교, '나' 형은 9%인 17개교, '가/나' 형은 81%인 155개교가 각각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사회, 과학, 직업탐구영역의 경우에는 18%인 34개교가 사회영역을 반영하고 있고, 24%인 46개교가 과학탐구영역을 반영하고 있다. 직업탐구영역은 0.5%인 1개교, 그리고 사회/과학탐구영역의 경우에는 19%인 38개교, 과학/직업탐구영역은 6%인 11개교, 사회/직업탐구영역은 4%인 8개교,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은 69%인 132개교가 각각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 반영대학은 19%인 37개교이다.

이러한 경향을 보면 2005학년도에도 절대 다수의 대학들이 수능시험 성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시2학기모집 대학의 전반적인 수능시험 성적 반영계획을 영역별로 보면, 언어영역은 전체의 44%인 74개교가, 외국어(영어)영역은 46%인 76개교가 이를 반영한다. 수리영역 중 '가' 형은 17%인 29개교, '나' 형은 7%인 11개

<표 5> 교과영역별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계획 실태(정시모집)

(단위: 반영 대학 수)

계열	언어	외국어 (영어)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 외국어 및 한문
			가	나	가/나	사회	과학	직업	사회/ 과학	과학/ 직업	사회/ 직업	사회/ 과학/ 직업	
인문사회	164	166	0	16	87	33	2	0	25	1	8	108	35
자연과학	78	124	31	2	100	1	36	0	21	8	1	76	7
공 학	73	121	24	1	104	1	24	0	9	9	0	78	7
예 체 능	139	132	0	6	59	15	3	0	20	0	5	92	13
의 학	33	47	26	1	23	0	27	0	8	2	0	9	1
기 타	26	24	2	0	20	0	2	1	4	0	1	19	0
전 체	185	186	41	17	155	34	46	1	38	11	8	132	37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2. 8.), 「200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 주요사항」.

교, '가/나' 형은 38%인 64개교가 각각 이를 반영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중 사회탐구영역은 7%인 12개교, 과학탐구영역은 14%인 24개교, 직업영역은 1%인 1개교, 사회/과학탐구영역은 10%인 17개교, 과학/직업영역은 4%인 6개교, 사회/직업탐구영역은 3%인 5개교,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은 22%인 36개교가 각각 이를 반영하고,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 반영 대학은 6%인 10개교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시모집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수치를 나타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열별 수능시험 영역 반영 경향은 같다고 보여진다.

특히 탐구영역선택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영역에서 요구하는 과목 수가 과다할 경우에 학생들의 시험준비와 대학 및 전공선택의 범위에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되므로 7차 교육과정과 관련지어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각 탐구영역별 지정 교과목 수 실태(정시)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면 정시모집의 경우 사회탐구영역에서는 74개교가 2과목을 요구하고, 49개교는 1과목을, 32개교는 4과목을, 17개교는 3과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과목 요구

대학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69개교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예체능 52개교, 자연과학 44개교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인문사회의 경우 사회탐구 반영비율 대학이 89%에 이르고, 자연과학의 경우 79%의 대학에서 선택 또는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공학은 전체의 64%의 대학에서, 예체능은 전체의 83%의 대학에서, 의학은 38%의 대학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만 직업탐구영역의 경우에는 선택 또는 지정 반영하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들이 특정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전체 과목에서 어느 과목이든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일정 개수의 과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탐구영역과목 선택에서 과목간의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다. 한편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 과목의 경우에 선택 또는 지정 반영하는 대학을 보면 정시모집의 경우 38개교는 중국어를, 37개교는 일본어와 한문을, 35개교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34개교는 러시아어를, 31개교는 스페인어와 아랍어 과목을 반영하여 제2외국어와 한문영역 과목을 고루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계열별로 볼 때 인문사회가 30여

<표 6> 사회/과학/직업 탐구영역별 지정 교과목 수 실태(정시모집)

(단위: 대학 수)

계열	사회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				직업탐구영역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
인문사회	40	69	13	25	38	57	7	12	40	51	13
자연과학	30	44	6	9	33	55	10	18	32	38	10
공학	31	40	3	5	31	51	8	17	33	39	10
예체능	39	52	10	17	38	46	5	12	39	43	7
의학	2	13	2	2	3	22	8	12	1	8	2
기타	4	13	2	5	4	13	2	5	4	11	6
전체	49	74	17	32	49	75	18	32	47	57	25

\*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2. 8.), 「200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 주요사항」.

개, 예체능이 12개, 자연과학과 공학이 각각 6개 대학 등으로 나타난 반면 의학은 1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3. 학교생활기록부

2005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학교생활기록부로 반영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수하게 되어 있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또한 2~3학년의 수능직접반영 교과목과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학입시에 치중되어 있는 고등학교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내신성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중점과목에 대한 학습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은 수시1학기, 수시2학기 및 정시모집에서 대학이 선택 또는 지정하여 반영하게 된다. 예컨대, 2005학년도 정시모집시 각 대학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관련 학교생활기록부의 전형요소 활용 계획을 정리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정시모집의 경우, 국어는 인문사회와 예체능계열에서 96%와 95%로 높게 반영되고 있고, 영어는 의학 98%, 공학

96%, 자연과학과 인문사회 각각 95% 등으로 높게 나타나 있다. 수학의 경우는 의학 98%, 공학 97%, 자연과학 96%로 나타나 많은 대학들이 이 공계통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는 인문사회계열에서 90%가 반영하고 있고, 과학은 의학계열 98%와 자연과학과 공학에서 각각 90%를 반영함으로써 모집계열에 따라 반영과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전형요소 활용 계획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시1학기모집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과목을 선택 또는 지정 반영하는 현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 95%, 영어 92%, 수학 89%, 사회(국사) 88%, 과학 84% 등으로 높은 반영률을 보이고, 도덕과 기술·가정 각각 65%로 중간 정도, 그리고 미술, 체육, 음악 등은 각각 50%대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다.

둘째, 수시2학기모집에서 국민공통교육과정 중 과목을 선택 또는 지정하여 반영하는 현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 98%, 영어 95%, 수학 92%, 사회(국사) 87%, 과학 82% 등으로 역시 높은 반영률을 보이고, 나머지 도덕, 기술·가정,

<표 7> 학교생활기록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전형요소 활용 계획(정시모집) (단위 : %)

계열	국어	도덕	사회 (국사)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영어	체육	음악	미술
인문사회	96	69	90	81	70	65	95	56	57	57
자연과학	89	61	73	96	90	64	95	52	52	52
공학	89	63	74	97	90	67	96	56	56	57
예체능	95	65	85	74	69	63	91	64	63	65
의학	87	55	74	98	98	55	98	47	47	47
기타	100	81	96	96	85	81	100	77	77	77
전체	96	70	90	92	87	68	96	65	65	66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2. 8.), 「200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 주요사항」.

체육, 미술, 음악 등은 60% 내외의 비교적 낮은 반영률을 보이고 있다.

셋째, 정시모집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과목을 선택 또는 지정하여 반영하는 현황을 과목별로 보면, 국어 96%, 영어 95%, 수학 92%, 사회(국사) 90%, 과학 87% 등 수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대학이 이들 과목을 비중 있게 반영하지만, 나머지 도덕, 기술·가정, 미술, 음악, 체육 등의 과목도 60~70% 수준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다.

넷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정시모집에서 활용도가 높은 과목을 모집 계열별로 살펴보면, 국어의 경우 인문사회와 예체능계열에서는 96%와 95%로 높고 의학계열에서는 87%로 낮다. 영어는 반대로 의학 98%, 공학 96%, 자연과학과 인문사회 각각 95% 등으로 높고 예체능은 91%로 낮다. 수학은 의학 98%, 공학 97% 자연과학 96%로 높으며 예체능은 74%로 낮다. 사회는 인문사회는 90%로 높고, 공학과 의학이 74%, 자연과학이 73%로 낮다. 과학은 의학계열 98%를 비롯하여 자연과학과 공학이 각각 90%로 높고 인문사회는 70%, 예체능은 69%로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수시1학기에서는 54개 대학(72.0%), 수시2학기에서는 117개 대학(70.0%), 정시에서는 143개 대학(74.4%)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이수하게 되는 선택교과과정의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수시1학기에서 전교과반영대학이 17개교, 일부 교과 반영대학이 55개교로 나타나 있고, 수시2학기의 경우에도 전교과 반영대학이 30개교, 일부 교과 반영대학이 136개교에 이른다. 정시의 경우에는 전교과 반영대학이 48개교이고, 일부 교과 반영대학이 143개교로 나타나 있다.

선택교육과정 중 과목을 선택 또는 지정 반영하는 현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수시1학기모집의 경우 인문·사회과목군에서는 국어는 91%, 사회는 87%, 도덕은 61%의 대학이, 과학·기술과목군에서는 수학은 89%, 과학은 86%, 기술·가정은 60%의 대학이, 예·체능과목군에서는 미술은 46%, 음악은 42%, 체육은 41%의 대학이, 외국어과목군에서는 영어는 84%, 제2외국어는 49%의 대학이, 교양과목군에서는 한문은 45%, 교양은 31%, 교련은 28%의 대학이 이를 각각 반영한다.

수시2학기모집의 경우를 보면, 인문·사회과목군에서 국어는 95%, 사회는 87%, 도덕은 54%의 대학이, 과학·기술과목군에서 수학은 90%, 과학은 83%, 기술·가정은 49%의 대학이, 예·체능과목군에서 체육과 미술은 45%, 음악은 39%의 대학이, 외국어과목군에서 영어는 89%, 제2외국어는 45%의 대학이, 교양과목군에서 한문은 34%, 교양은 25%, 교련은 24%의 대학이 이를 각각 반영한다.

정시모집의 경우를 보면, 인문·사회과목군에서 국어는 94%, 사회는 89%, 도덕은 60%의 대학이, 과학·기술과목군에서 수학은 90%, 과학은 86%, 기술·가정은 56%의 대학이, 예·체능과목군에서 미술은 53%, 체육은 51%, 음악은 48%의 대학이, 외국어과목군에서 영어는 89%, 제2외국어는 51%의 대학이, 교양과목군에서 한문은 39%, 교련은 32%, 교양은 31%의 대학이 각각 이를 반영한다.

한편 선택교육과정의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수시1학기에서 72%인 54개교, 수시2학기에서 70.7%인 118개교, 정시에서 76.0%인 146개교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특성을 보면 국민공통기본교과이든 선택교

과이든간에 과목별 반영비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집시기별로 수시1학기모집으로부터 정시모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와 과목이 다양하고 균형적인 비율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래와 같이 국·영·수 위주의 특정 교과 편중이나 과목간 불균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식현상은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7차 교육과정의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다소 우려가 없을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교과의 반영 대학들도 전과목 반영대학과 일부 과목 반영 대학들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 대학들이 모집시기별로 비슷하게 나타나 있고, 선택교과의 경우에는 전과목 반영 대학보다 일부 과목 반영 대학이 훨씬 많아서 고2~3학년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적성과 흥미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하여 집중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향은 선택형 7차 교육과정의 본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고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3학년에서는 선택교과를 이수함으로써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 IV. 맺는 말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볼 때,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틀의 기본방향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가 달라졌고, 전형요소가 더욱 다양해진 점을 그 주요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틀의 변화는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수능시험 성적 반영과 관련하여

'2+1' 체제가 바람직하느냐, '3+1' 체제가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2002년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자료에서 119개 대학(44.1%)이 '3+1' 체제, 100개 대학(37.0%)이 '2+1' 체제, 34개 대학(12.6%)이 2개 영역 반영, 15개 대학(5.6%)이 미반영, 2개 대학(0.7%)이 1개 영역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볼 때, 대학은 입학 후의 수학능력을 이유로 '3+1' 체제를 다소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1' 체제를 채택한 대학들은 우리 고등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3+1' 체제의 채택은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1' 이든 '3+1' 이든 전교과목을 준비해야 하던 종전의 대학입학제도에서와 비교할 때 학습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더욱이 대학진학 희망 학생수의 감소, 다양화·자율화·특성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대학입학 정책 등을 감안할 때 대학들이 대학입학전형요소들을 최소한 더 이상은 늘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3+1' 체제와 '2+1'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학 수가 비슷하고, 두 체제가 공히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떤 체제가 더 좋으냐는 소모적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이를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고등학교가 당면한 문제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대비하여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적성, 흥미, 특기에 따라 다양하게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7차 교육과정의 특성과 향후 대학입학전형이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되어 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각 대학의 수능시험 성적과 학교

생활기록부 등의 전형요소 활용계획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학생들을 특정 대학에 맞추어 수험준비를 시키기보다는 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평소에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1학년들에게는 국민공통 기본과정을 충실히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학습기회를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경험 과정 속에서 학생이 자신의 적성, 흥미와 장차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직업 등을 토대로 가능한 한 조기에 그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진로지도가 요청된다.

이러한 진로지도를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 주고, 이를 바탕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학과를 선정하도록 하여 해당 대학의 모집단위가 요구하는 전형요소의 교과목을 학습하도록 하는 전략적 지도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는 백화점식 학습방법보다는 진학 희망 대학과 전공으로 그 범위를 좁혀 심화 학습을 하도록 하는 전략적 지도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2005학년도 대학전형이 다양한 적성과 소질 및 흥미를 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지금껏 특정 직업군이나 전공영역에 편중되어 있던 왜곡된 교육현실을 다소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제도나 체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의식의 문제가 더욱 큰 영향을 끼친다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과제를 해석하고 활용해야 되리라고 본다. **대학**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1.1.). 7차 교육과정 개요 : 교육과정 자료 29.
- 교육인적자원부(2003.8).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기본계획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3-41호.
- 이현청(1998). “대학 입시 개혁과 교육 경쟁력”. 『교육 월보』, 8월호. 교육부.
- 이현청(1999). “2002년 새 입시의 의미와 과제”. 전국교무처장협의회 연차 세미나 자료집.
- 이현청(2001).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의 주요사항과 과제”. 2005학년도 대학입시정책포럼 세미나 발표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3.6.).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안.
-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9). 2002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자료집.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2.8.). 200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 주요사항.

### 이현청

한양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남일리노이대학에서 교육학석사 및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대 교수, 남일리노이대학과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UMAP(아·태지역 고등교육협력기구) 회장, 세계대학협의회(IAU) Higher Education Policy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교육사회학』, 『21세기를 대비한 대학의 생존 전략』, 『학습하는 사회』, 『21세기와 함께하는 대학』 외 다수가 있다.